

# 기린초 분화재배시 토양산도(pH)별 생육특성 평가

서종택, 유동림, 이현숙, 남춘우, 김수정  
고령지농업연구소 원예과

## Growth Characteristics of *Sedum kamtschaticum* Potted in the Different Soil Acidity (pH) Conditions

Suh, Jong-Taek\*, Yoo, Dong-Lim, Lee, Hyeon-Suk, Nam, Chun-Woo and  
Kim, Su-Jeong

National Institute of Highland Agriculture, RDA, Pyeongchang 232-955, Korea

\*E-mail: jtsuh122@rda.go.kr

### 연구목적

기린초는 양지내지는 반음지성 식물로 분화나 화단용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유망한 식물 중에 하나이다. 자생화의 대부분이 육묘 및 분화재배시 배양토의 pH에 따라 생육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린초도 재배토양의 pH에 민감하여 생육이 고르지 못한 이유로 출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시험에서는 기린초 분화재배시 배양토의 pH를 구명하여 최적 생육조건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에서는 시험화종을 기린초 유묘를 이용하였으며 경량배양토는 피트모스만을 이용하였으며 pH는 생석회를 이용하여 4.5, 5.0, 5.5, 6.0으로 조절하였다. 직경 10cm 화분에 1주씩 분식한 후 완전임의배치 3반복으로 배치하여 온실에서 6월부터 9월까지 관리하였으며 관수는 오전 10시에 10분간 저면 관수 후 퇴수하여 주면서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 결과 및 고찰

기린초의 토양산도별 생육특성을 보면 초장, 엽수, 분지수 등의 생육에 있어서 토양 pH 처리별로 초장은 pH가 낮을수록 생육초기부터 후기까지 생육이 좋았으며 엽수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분지수 또한 pH가 낮은 처리에서 많게 나타나 경향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기린초 재배시에는 토양산도를 4.5~5.0정도로 맞추어 주는 것이 pH 6.0보다 초기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양호하며 균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배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